

미군의 초반작전 실패 논란과 바그다드 시가전 전망

□ 초반 군사작전의 실패 논란

- 전쟁시작 직후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를 표방한 미국의 공격은 걸프전 당시에 비해 전력이 크게 약화된 이라크군을 쉽게 제압하고 전쟁을 단시간에 종결시킬 것 같은 기대를 높였음.
- 그러나 허를 찌르는 이라크의 기습작전에 말린 미군의 진격이 주춤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도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많은 전문가들이 초반 작전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군 수뇌부는 계획된 대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예상보다 빠른 지상군 투입으로 후방부대가 이라크의 게릴라전에 노출된 것은 이라크군에 대한 과소평가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전여론을 의식한 미국 수뇌부의 조바심 때문이라고 비판받고 있음. 여기에다 55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걸프전에 비해 이번 전쟁의 동원병력이 약 20여만 명에 불과한 점과 북부 터키전선이 폐쇄됨으로써 중무장 지상군 투입이 지연된 점도 지상전 차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미국의 오판

- 무엇보다 가장 큰 차질 원인은 이라크의 일반국민들이 미군의 진입을 열렬히 지지하고, 군인들도 다수가 항복대열에 합세함으로써 후세인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바램이 실현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임.

-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엄청난 물량의 전단살포, 공중방송 등을 통해 이라크 국민과 군을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이라크의 복잡한 민족구성과 후세인 정권에서 소외된 다수 시아파 회교도의 존재를 고려할 때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 못지 않게 이라크 내부저항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이라크의 민족 및 종교구성: 아랍족이 전체 인구의 75~80%, 쿠르드족이 15~20%, 터키계 등 기타 민족이 5%로 이루어져 있음. 시아파 아랍족이 전체인구의 55~60%를 차지하나, 전체인구의 약 20%에 불과한 수니파 아랍족이 이라크를 계속 통치해 왔음.

- 미국은 대규모 투항이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안요원, 바트당원, 게릴라 부대 등 후세인 각종 친위세력들이 일반 국민들과 군대 말단조직까지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기대가 깨진 데에는 미국의 지나간 과오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지난 걸프전에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反후세인 무장봉기를 유도하였으며, 이들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적극적으로 후세인에 저항하였으나 결국의 미국의 배신으로 후세인의 잔혹한 보복을 겪어야 했음.
- 시아파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양치기 소년이 되었던 미국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일반국민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로 자신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것도 후세인 정권보다는 미국에 원망을 돌리고 있음.

□ 바그다드 시가전의 위험

- 미군은 개전 1주일만에 30K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바그다드 사수에 나선 이라크의 공화국수비대와 마주하게 되었으며, 며칠간 숨고르기를 마치면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전황이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미국 수뇌부의 조바심이 노출되고 있으

나 이번 전쟁은 당초부터 4~5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바그다드 공략에 상당한 기간이 소모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¹⁾

- 이라크는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는 공화국수비대 3대 사단이 바그다드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바그다드 시내에는 다시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공화국수비대(SRG)와 '페다인 사담'(Fedayeen Saddam)이라 불리는 비정규전 부대 등이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도시 내에는 건물, 교량 등 모든 지형지물이 엄폐물로 활용될 수 있어, 미군의 압도적인 무기의 우위를 상쇄할 것으로 보임. 특히 바그다드의 500만 민간인은 이라크군의 가장 중요한 엄폐물로 이용될 것임.
- 미국은 이번 바그다드 시가전이 '비극적인 전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군 희생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자신들과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당한 난제를 안고 있음.

□ 생화학무기 사용가능성

- 바그다드 공략을 앞두고 이라크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도 관심의 초점 중 하나임.
-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이라크가 지난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과 쿠르드족 진압에 생화학무기를 사용했던 전력에 비추어 아직도 미사일이나 개인화기를 통한 생화학 공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1991년 이후 이라크는 UN으로부터 무기사찰을 받아 왔으나, 아직까지 생화학무기 보유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실험실을 운용하며 UN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1) 지난 걸프전에서 개방된 사막지역에서 연합군과 대치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세인은 바그다드 시가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며, 미국도 지난 수개월 동안 바그다드 시가전에 대비하여 병사들의 훈련을 집중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후세인이 핵무기도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UN 무기사찰단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 생화학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공격은 미군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미 CIA는 이라크가 100~500톤 정도의 생화학물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 못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생화학전에 대비하여 미군 병사들이 충분한 생화학무기 탐지 및 방어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라크군의 생화학무기 공격은 일반적인 평가만큼 미군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후세인의 특수보안대(SSO)가 이라크 생화학무기를 통제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바그다드 시가전에서 생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미·영 연합군보다는 바그다드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